2천년 불교유적 인근 영빈관 건립 '논란'

인도, 톳라콘다 인근 12헥타르 규모로 추진

'문화유산 훼손' 우려 확산
불교계 · 시민단체 등 반발
미발굴된 구역에도 악영향
정부측 "역사적 가치 염두"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 된 불교 유적지 인근에 내빈들을 위한 영빈관(迎賓館)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불교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활동가들과 불교 단체들은 정부의 이 프로젝트가 불교 유산을 훼손할 수 있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구역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8월 28일 더 힌두(The Hindu)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동부 해안 안드라프라데시주(州) 내의 활동가들과 불교 단체들은 고대 톳라콘다(Thotlakonda) 불교 복합 단지 인근에 VIP들을 위한 12헥타르 규모의 게스트하우스와 숙박시설을 건설하려는 주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안드라프라데시주의 가장 큰 도시인 비샤카파트남에서 약 15km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톳라콘다 불교 단지는 기원전 2세기와 기원후 2세기 사이에 번성해 3세기 말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톳라콘다는 바비콘다 · 파뷸라라콘다 불교 복합단지 인근에 나란히 생겨났으며,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 인도 불교를 전파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고대 도시 칼링가(Kalinga) 지역에 속해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온 승려들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기 위해 이곳을 순례했다고 전해진다.

주 정부는 "역사적 보호 가치를 지닌 곳은 개발 예정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광부처 관계자는 지역 언론들을 통해 "영빈관 추진이 해당 유적지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정된 건설 부지는 톳라콘다에서 1km 떨어져 있어 유적지에 미칠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문화재 보호에 전념한다. 영빈관은 보호구역에서 1km이상 떨어져 있다"며 "우리는 불교 국가들로부터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인근 불교 유적지에서 할 수 있는 위빠사나 명상과 불교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톳라콘다에 있는 마하(Maha) 부도탑을 복원해 왔고, 이는 유적지 보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고대 톳라콘다 불교복합단지 인근에 VIP들을 위한 12헥타르 규모의 게스트하우스와 숙박시설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출처=thenewsminute.com

반면 활동가들과 불교 단체들은 톳라콘다를 비롯한 주요 불교 복합단지 인근에서의 어떤 개발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구역에서 초기불교 시대의 풍부한 불교 유산이 발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정부 관료이자 사회 활동가인 E.A.S. 사르마(E. A. S. Sarma)는 "톳라콘다 인근은 대부분 아직 미개척된 상태로, 고고학적 유적이 더 풍부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영빈관 건설 예정 부지에도 고고학 · 역사학적으로 보호돼야 할 지역이 포함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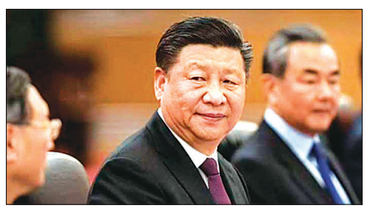
특히 불교기념물보호위원회의 코타팔리 벤카타라마나(Kothapalli Venkataramana) 위원은 주 정부가 의도적으로 톳라콘다 인근 보호 및 발굴 조사 지역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톳라콘다 주변 발굴 구역과 관련된 토지기록이 수년에 걸쳐 변경됐다. 발굴 구역은 원래 1200헥타르 규모에 달하며, 이중 최소 240헥타르 구역이 영빈관 건설 예정 부지에 속한다"며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주 정부 관계자들이 보호 조사 지역을 불과 48헥타르로 줄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영빈관 건설 예정 부지 중 최소 240헥타르에서 실제로 불교 건축물이 발견됐다"며 "주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무리한 건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티베트 불교의 '중국화' 강조

8월 30일 공산당 지도부에 "불교, 사회주의 적응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출처=힌두스탄타임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 불교의 '중국화'를 재차 강조했다.

8월 30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중국공산당 중앙 티베트 업무 좌담회에서 당 · 정 · 군부 지도자들에게 "티베트에서의 공산당의 역할을 강화해 티베트족들을 더 잘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티베트 불교도 사회주의와 중국의 상황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인도와의 국경 충돌이 빈번해 티베트에서의 분리 독립 운동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티베트 지역은 중국과 인도 간 국경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티베트 분리 독립 운동과 함께 중국에게 큰 부담을 안겨 주는 상황이다.

시 주석은 "티베트 국경에서의 방어를 강화해 항구적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들에 대한 정치 · 이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에 주력해야 한다. 또 주민들이 분리주의 척결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확고한 요새'를 수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이어 티베트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티베트 자치구 내 학교에서 사상과 정치 교육을 강화해 전 과정에서 애국주의 정신을 관철해야 한다"며 "공산당과 신중국, 개혁개방, 사회주의 발전, 티베트 지역과 중국 관계 역사에 대한 교육을 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후 주변 국가들을 침략, '중국화'를 시행해 왔다. 불교 국가인 티베트는 이에 격렬히 저항하다 1951년 '자치구이지만 중국 땅'이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에도 티베트 자치구에 대한 탄압을 자행해, 티베트는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 재해시 피난장소로 사찰 지정해

과밀방지 위한 대안 일환
전국 산재한 사찰이 최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채 이어지는 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이어지는 일본. 일본의 한 지방도시에서 재해시 주민들의 피난을 위한 시설로 사찰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8월 20일, 일본의 'CBC뉴스' '아사히 신문'은 피난시설로 활용되는 사찰들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중부에 위치한 아이치(愛知)현의 세토(瀨戶)시는 20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에 소재한 사찰들을 재해시 임시피난장소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지역 불교계와 충분한 협의 끝에 결정된 이번 사항에서 시내 50개소의 사찰 가운데 총 14개소의 사찰들이 임시피난장소로 지정됐다.

사찰을 임시피난장소, 혹은 정규피난장소로 지정한 사례는 일본 각지에서 볼 수 있다. 사찰의 경우 지역에서 랜드마크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찾기 쉬우며,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경내에 무너지기 쉬운 조경이 드문 점에서 재해시 피난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꼽힌다.

세토시측은 "현재 시내에 지정된 피난장소는 50여개소로 대부분 학교나 회관과 같이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 장소에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던 중 시내에 산재한 사찰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토시 불교회와 협조를 받아 임시피난장소로 사용할 사찰들이 지정됐다.

임시피난장소로 지정된 사찰들은 장애인과 고령자, 혹은 시가 지정한 공식 피난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수용하게 된다. 피난시 필요한 구호물자들은 시에서 준비, 각 지정사찰에서 보관한다. 시 측은 수용될 계층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인 것에 대비 우선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들의 감염방지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토시 불교회장 나카시마 에이카이 스님은 "자비와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지정된 사찰들에 대한 불교회 측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천년고찰서 만나는 청량한 풍경소리

日코묘지, 8월 29일 '풍경축제'
2000개 풍경으로 경내 채워

장마가 마무리되고 늦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 한 사찰에서 2천여 개의 풍경소리로 청량감을 더하는 '풍경축제'가 열려 화제다. 8월 29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 'NHK 뉴스' 등은 시원한 축제의 모습을 특별 보도했다.

효고(兵庫)현 사요(佐用)군에 소재한 사찰 코묘지(光明寺). 8세기초 백제계 고승이었던 쿄키(行基)스님이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지역에선 건강과 장수의 영험이 높은 절로 유명하다. 이 코묘지의 주지인 이노우에 류케이 스님의 발안으로 시작한 '풍경축제'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경내를 장엄하는 유리풍경들. 사진출처=키스프레스

류케이 스님은 "고찰이다 보니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 외에 발걸음을 어려워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모두가 산문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시작했다"며 축제의 계기를 전했다. 스님은 일본에서 풍경은 여름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과 백중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는 것에서 착안해 풍경축제를 시작하게 됐다.

본당을 비롯한 사찰 내 전각의 처마와, 특별히 설치된 거치대 등에 걸린 풍경들은 약 1,500여개. 유리로 만들어진 풍경들엔 불교를 상징하는 일러스트나 게송, 메시지 등이 쓰여졌다. 코묘지측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메시지를 많이 담았다"고 전했다. 또 코묘지는 참배자들이 자신의 소원이나 감상을 담은 풍경을 달 수 있도록 공양용 풍경도 마련했다. 대부분의 풍경에는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기원이 담겼다. 축제가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500여개의 풍경이 공양 올려졌다.

풍경을 보기 일부러 다른 도시에서 왔다는 한 60대 여성은 "풍경소리는 예로부터 좋지 않은 기운을 떨쳐낸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풍경이 한 번에 울리는 만큼 빨리 어려운 상황들이 종식되길 바란다"며 자신이 매단 풍경을 가리켰다.

매년 7월부터 9월 중순에 걸쳐 열리는 풍경축제는 몇 년 전부터 SNS 등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규모와 참배객이 늘고 있다. 류케이 스님은 "축제기간 동안 24시간 산문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예년에는 야간 라이트업도 함께 진행했으나, 올해는 혼잡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중지됐다. 스님은 "남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서 울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12
02)3673-3442,764-2159
010-5264-3906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